

2025년 경기예술지원 2차공모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및 원로예술활동지원

문학 분야 심의평

2025. 5. 22.

심의위원장	정홍수	(서명)
심의위원	고명환	(서명)
심의위원	신외경	(서명)
심의위원	김리라	(서명)
심의위원	소홍주	(서명)
심의위원	김재영	(서명)
심의위원	맹필재	(서명)
심의위원	조기호	(서명)

2025 경기예술지원 2차공모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문학 분야 심의평

○시 부문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극복하려는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퇴직자, 실직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고뇌와 아픔을 깊은 사고로 인식하고, 그 극복을 위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를 담은 한 권의 시집이 시대를 울렸으며, 사회적 약자의 아픔, 고령화 시대의 문제, 남북문제, 기후 변화, 인공지능과 4차 산업 등 다양한 제제를 포괄하고 있었다. 개인의 아픔에서 지구의 아픔까지 사유하고 형상화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비정한 물질주의 가치에 맞서는 시인들의 용기가 돋보였다. 공동체 가치를 노래한 작품들은 가난과 소외를 외면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실천으로 읽혔다.

○소설 부문

단편과 중편, 장편이 고루 응모되었으며, 한국 사회의 냉혹함과 폭력성, 비리가 횡행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작품들과 지구를 벗어나거나 미래 과학을 소재로 한 작품 등 다양한 접근이 있었다. 이야기의 재미만을 추구하거나 문장과 문단 구성이 다소 단순해 완성도 면에서 아쉬움을 남긴 작품들도 있었다.

그 밖에도 산동네 재개발을 배경으로 빈곤, 억압, 국가폭력 등 현대사의 어두운 측면을 어린 화자의 시선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풍부한 상징과 비유, 짜임새 있는 탄탄한 구성으로 완성도를 높인 작품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가족 해체와 유사가족 서사를 통해 탈가족성과 탈시대성을 드러내면서도 소설적 긴장을 유지한 작품도 함께 주목되었다.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 고독사나 지구 탈출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룬 작품도 많았으나, 주제의식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형상화가 충분히 않은 경우가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최종적으로는 산과 바다라는 단순한 공간을 배경으로 인물의 내면을 차분히 드러내며 문학성을 견고히 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아동문학 부문

어린이, 청소년 문학이 갖추어야 할 고유의 미덕을 지닌 작품들이 다수 응모되었다. 선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응모작들이 많았으며, 특히 어린이·청소년이 마주하는 현실의 고민과 감정을 밀도 있는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시, 소설, 아동문학 외(수필, 희곡 등) 부문

시, 소설, 아동문학 외 부문에서는 수필 분야의 응모가 가장 많았다. 일상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평범한 글이 대부분이었지만, 뚜렷한 주제와 기획 아래 개성적인 문체로 자신의 글쓰기 세계를 구축한 응모자들도 적지 않았다. 몸의 자유, 부자간·세대 간 갈등, 노숙인 극단 운영기 등 특정한 주제를 집중력 있게 파고든 수필들이 눈에 띄었고, 자신만의 언어를 찾아낸 창조적 글쓰기에 높은 점수가 주어졌다. 희곡 분야에서는 우리 시대의 어둡고 착잡한 현실을 독특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있었으며, 극의 구조도 단단하게 짜여 있었다.

○종합평

이번 심사에서는 각 장르마다 동시대의 문제를 성찰하는 태도와 문학적 형상화의 시도가 두드러졌다. 응모작들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현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며, 문학이 여전히 공동체를 사유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녔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장르에 대한 이해와 실험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 작품들이 인상 깊었으며, 익숙한 서사를 반복하기보다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한 노력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응모작 수의 증가만큼 그 안에 담긴 문제의식의 폭도 넓었고, 새로운 감각과 언어로 이를 구현하려는 시도 또한 적극적이었다. 개별 작품의 완성도뿐 아니라 동시대 문학의 흐름 속에서 어떤 목소리로 발화하는지를 중시하여 작품을 바라보려 했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문학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응모자들의 성실한 태도와 고민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창작 여정에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2025.5.22.

심의위원

조기조
맹문재
김재영
손홍규
신지영
김리라
정홍수
고명철

시인
안양대학교 교수
소설가
소설가
아동문학가
아동문학가
문학평론가
문학평론가

2025 경기예술지원 2차공모

【 원로 예술활동 지원 】 문학 분야 심의평

○시 부문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겪는 소외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작품들이 다수 응모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빈부 격차, 노인이 처한 가난과 질병, 독거인의 외로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한 구조조정,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소시민들, 단절된 인간관계 등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시로 형상화되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시적 언어로 사회적 고통을 포착하고자 한 작품들이 인상 깊었다.

○소설 부문

단편을 비롯해 중편과 장편이 고르게 응모되었으며, 역사 소설부터 동시대 세태를 날카롭게 묘파한 작품까지 다양한 주제의식이 드러났다. 특히 작가의 통찰이 엿보이며, 따뜻하고 내밀한 시선으로 소설적 질문을 유려하게 풀어낸 작품이 돋보였다. 다만 과거 이야기를 다룬 일부 작품에서는 서술 방식까지 과거에 머문 듯한 인상이 아쉬움을 남겼다.

○아동문학 부문

동시, 단편동화, 장편동화, 청소년소설 등 형식의 다양성이 돋보였으며, 그중에서도 문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작품에 주목했다. 실제 사건과 창작된 인물의 감정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배경 안에 중학생과 대학생을 등장시켜 소통을 시도한 작품이 인상 깊었다. 아픔과 상처를 공유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극복해내는 과정이 잘 그려진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시, 소설, 아동문학 외(수필, 희곡 등) 부문

일상과 존재에 대한 웅숭깊은 사유가 드러나는 작품은 원로 작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게 했다. 한편으로는 계몽성이 과잉되거나 상투적인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글쓰기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 '좋은 글쓰기'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었다. 자기 사유의 깊이와 언어의 정제된 밀도를 갖춘 글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합평

이번 심사는 문학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자리였다. 특히 오랜 시간 창작의 길을 걸어온 원로 작가의 응모작들은 축적된 내공과 삶의 곁이 담긴 문장으로, 후배 문인들에게 많은 울림과 성찰을 안겨주었다. 문학적 형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실을 응시하는 태도, 언어에 대한 절제된 미학이 응모작 전반에 깃들어 있었다.

시대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작가적 자세는 무엇보다 값진 문학의 본보기였다. 존재와 일상, 역사와 사회를 꿰뚫는 사유는 단지 주제를 넘어서 그 표현 방식에서도 고유한 무게감을 전했다. 일부 작품에서는 문학적 형상화의 실험이 다소 고전적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또한 오랜 시간 쌓아온 작가정신의 또 다른 발현으로 읽혔다.

창작의 연륜이 가져다주는 무게와 품격, 그리고 여전히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려는 내면의

진심은 응모작 곳곳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묵묵히 문학을 지켜온 원로 작가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5.5.22.

심의회원	조기조	시인
	맹문재	안양대학교 교수
	김재영	소설가
	손홍규	소설가
	신지영	아동문학가
	김리라	아동문학가
	정홍수	문학평론가
	고명철	문학평론가